내일이면 잊겠지만, 오늘은 행복을 노래할래요

치매 노인·배우자 12명 합창단
'치매 극복의 날' 맞아 특별 공연
"평생 노래 않던 무뚝뚝한 아버지 해맑게 합창하는 모습에 먹먹해져"
"남편인 날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집사람 노래 다시 들으니 설레"

이덕훈 기자

치매 환자와 그 배우자로 구성된 합창단 '힐링하모니'가 석 달 연습 끝에 준비한 '치매 극복 송'을 부르고 있다. 중간중간 선 젊은이들은 자원봉사 대학생이다.

'치매 극복의 날'인 지난 19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치매 극복 실버합창대회'가 열렸다. 치매 환자가 아닌 60세 이상 일반인으로 구성된 12팀의 공연이 끝나고 특별무대가 마련됐다. 할아버지·할머니 12명과 대학생 14명이 노래하고 가수 '여행스케치'가 통기타로 반주했다. 노래 제목은 '당신을 기억해요'. 여행스케치 조병석(48)씨가 만든 '치매 극복송'이다. '소중한 기억과 아름다운 사랑을 잃을까 이젠 더 이상 겁내지 말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매일 함께 웃어요.'

합창단 실력은 형편없었다. 석 달 동안 연습한 곡이지만 더듬더듬 입을 벌리는 할아버지·할머니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 옆에 선 대학생을 빤히 쳐다보거나 박자를 놓쳐 어색하게 미소짓는 이도 있었다. 그래도 옆 사람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손짓만은 힘찼다. 지휘자는 없었다. 단장 이윤진(49)씨가 지휘석에 섰지만 한 일은 박수를 쳐준 것뿐이다. 합창단 이름은 '힐링하모니', 치매 노인 8명과 그들의 배우자 4명으로 꾸려진 '치매 합창단'이다. 관객 300명은 이 형편없는 노래를 들으며 한껏 응원해줬다.

힐링하모니는 지난 6월 만들어졌다. 멤버는 서울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에 다니는 노인들이다. 남편·아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누가 음악을 가르칠 것인가. 나선 사람은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이윤진씨다. 어머니(86)가 센터에 다닌다는 인연 하나 믿고 '도와달라'는 센터 측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한다.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간씩 했다. 이씨는 '내가 이 시간에 애들한테 피아노 가르치면 버는 돈이 얼만데'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한다. 장맛비 쏟아지던 7월 어느 날, 이씨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노인들이 얼마나 오겠느냐'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집에 남기고 연습실로 갔다. 바로 돌아올 요량이었다. 그러나 연습실에는 어머니를 뺀 모든 단원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앉아 있었다. "돈 생각을 해온 저를 반성했어요."

3개월의 연습은 단장 이씨에겐 인내심과의 싸움이었다. 단원들은 음을 익히고 박자 맞추기를 버거워했다. 똑같은 수업을 수십번 해야 했다. 신경이 예민한 치매 환자들은 연습하다가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음 연습 땐 싸운 사실도 잊은 채 서로 손잡고 노래했다. 이씨는 "모두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여럿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우리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마침내 공연이 있던 날, 객석에는 치매 2년째인 육정기(78)씨의 딸 영화(45)씨가 꽃다발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는 "노래 부르는 걸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무뚝뚝한 아버지가 해맑은 표정으로 합창하시는 걸 보니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부쩍 우울해진 아내 강영자(75)씨를 데리고 합창단에 참여한 김응서(86)씨는 "젊은 시절 '소양강 처녀'를 맛깔나게 불러 나를 설레게 했던 집사람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김진찬(62)씨는 공연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 김용길(70)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우리 이제 공연하러 가는 거예요?" 37년이나 같이 산 남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답했다. "아가씨, 1시간 전에 공연은 끝났어요. 집에 가서 저랑 한 곡 더 하시죠."

김승재 기자

"세계가 탐내는 현장형 인재… 東아시아 네트워크로 키워"

창학 60년 우송학원 김성경 이사장

1950~197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은 대부분 '동아연필'을 기억한다. 1946년 설립된 국내 첫 문구회사다. 사장은 일본 와세다대에서 공부하고 온 대전의 **김정우**(金正雨·1916~2005)씨였다. 1961년 초대 민선 대전시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1954년 그는 대전에 '우송학원'을 설립했다.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자'는 취지였다. 현재 우송대와 우송정보대 등이 있다. 그 우송학원이 다음 달 15일 창학 60주년을 맞는다. 설립자 김정우씨는 9년 전 타계했고, 지금은 아들 **김성경**(金聖經·64·사진)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지난 60년간 우송학원은 늘 '쓰임'이 되는 실용교육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와 시장에 맞는 현장형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해요." 아버지의 이런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 'GPS 전략'이다. 국제화(Globalization), 산학협력(Partnership), 특성화(Specialization)를 말한다. 김 이사장은 "핵심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우송학원은 특히 국제화에 열정을 쏟고 있다. "우린 대학이 갈 길을 아시아에서 찾습니다. 제가 총장일 때도 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우송학원과 자매결연을 한 해외 대학은 24개국, 81개에 이른다. 특히 중국·일본·베트남·캄보디아 같은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단단하다.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데다, 미주나 유럽에 비해 진출도 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동아시아 경제 견인의 중심 역할을 한국·중국·일본의 대학이 맡아야 합니다. 적어도 아시아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인재를 육성해야지요." 2007년 설립한 '솔브릿지국제경영대'에 이런 생각이 반영돼 있다. 김 이사장은 차곡차곡 모아온 발전기금 300억원을 여기에 쏟아부었다. 하버드대·예일대 등 유명 대학 출신 석학들을 교수진으로 초빙했다. 솔브릿지대 교수 30명 가운데 27명이 외국인이다. 학생도 800명 중 외국인이 70%이고, 출신국도 33개나 된다. 100% 영어 강의에 첨단 실습실과 피트니스센터 등 최고 환경을 갖췄다. 김 이사장은 "경영 부문은 하버드·와튼·컬럼비아 같은 세계 유수의 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우송대 총장은 미국의 반핵운동가로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거론됐던 존 앤디컷이다. 그는 취임 이듬해인 2010년 국내 최초로 1년 4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하게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향점은 '2020년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대학'이다. 김 이사장은 "세계의 기업 현장 어디서나 환영받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도전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송학원은 내년 '솔 인터내셔널 스쿨'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영·철도·호텔·의료경영·조리·실용음악 등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들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임도혁 기자

팔뚝에 붓 동여매고 희망을 그립니다

장애인 화가 김정욱씨 첫 개인전

박주영 기자

"제겐 이 그림들이 칠흑 어둠 속의 빛이라예."

부산의 장애인 화가 **김정욱**(49·사진)씨가 지난 16일부터 보름 일정으로 경주 보문단지 콜로세움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노란 매화, 흰 연꽃, 7월의 숲, 가을의 시골 등 20점이다. 손가락 신경이 죽어 팔뚝에 압박붕대로 붓을 묶어 그린 그림들이다. 18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중상을 입은 후유증이다. 하지만 그림은 어둡지 않다. 주로 짙은 색을 썼지만 밝은 기운이 있다고들 말한다. 그는 "희망이 느껴지는 생명, 그리고 탄생이 좋다"고 했다.

그는 해군 하사관 복무를 마치고 3년간 상선을 탔다. 이후 5년은 순경으로 근무했다. 1996년 부친상을 마치고 장지에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5년간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대소변을 받아냈다. 게다가 사기를 당해 사고 보상금을 포함한 거의 전 재산을 날려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다. 이후 몸 상태는 서서히 나아져 2001년엔 몸을 굴려 앉을 수 있게 됐고, 몇 달 뒤 휠체어에도 올라탈 수 있었다. 하지만 신세 한탄에 술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가 장애 도우미들과 동창들의 격려에 방송통신대 영어영문과에 등록해 졸업했다. 붓은 2007년에 잡았다. "놀면 뭐하노. 취미 삼아 살살 그려보라"며 고교 시절 미술반 친구들이 권했다. 김씨는 "다시 붓을 잡으니 마음속 그늘이 옅어져 갔다"고 했다. 처음엔 하루 1시간, 요즘은 3시간가량 작업한다.

김씨는 아직도 가슴 밑은 마비된 상태이고, 팔도 손목까지만 쓸 수 있다. 작품 하나 완성하려면 한 달 넘게 걸린다. 그래도 7년 동안 김해미술대전 특선 등 4번 상을 받았고, 경남아트페어 부스에서 전시회도 가졌다. 하지만 갤러리에서 연 번듯한 개인전은 처음이다. 고교 동기들이 돕기 운동에 나섰고, 갤러리를 가진 선배가 공간을 내주었다. 콜로세움갤러리 최봉근(52) 관장은 "친구를 생각하는 후배들이 갸륵해 동참했다"고 말했다. 작품도 주로 동문들이 사주면서 현재 절반가량 팔렸다.

부산=박주영 기자

이원탁 대원대 총장

이원탁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이 대원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입법조사관, 건설교통위 전문위원, 윤리특별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김혜영·오한진 피해자지원協 홍보대사

방송인 **김혜영**(52)씨와 비에비스나무병원 갱년기·노화방지센터장 **오한진**(53) 박사가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강력 범죄 피해자나 가족을 위한 법률 자문과 의료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本紙 이택진·이의호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박문홍)는 조선일보 **이택진**〈왼쪽〉·**이의호** 기자(9월 6일자 A20면 '독일 축구화, 발에 맞을까')와 동아일보 **김남준**, 중앙일보 **김홍준**, 경남신문 **김동주** 기자를 제156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플라자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이사장 송용식)은 2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하얏트호텔 남산3룸에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초청해 '통일 호기 놓칠 수 없다'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소장 김성수)는 24일 오후 3시 서울 한양대 사회과학관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 국제 구호개발 NGO의 사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은 24일 오후 5시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젊은 창업가들의 황금의 땅'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연다.

인사

▲**외교부** ▷중남미국장 박상훈 ▷평화외교기획단장 권용우

하루에 19개국 땅 밟은 노르웨이 아저씨들

그리스를 출발해 유럽 국가 돌아
주로 자동차… 항공기도 두 번 타
M&A전문 한국계 박태용씨 동참

텔레그래프

왼쪽부터 오벤 주비크, 군나르 가포스, 그리고 한국계 박태용씨.

'단 하루에 얼마나 많은 나라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이 황당한 의문을 풀기 위해 도전한 이들이 얻은 답은 '19개국'이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노르웨이 남성 3명이 24시간 만에 유럽 19개국 방문에 성공,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고 22일 보도했다.

군나르 가포스(39)와 **오벤 주비크**(38), 그리고 한국계 노르웨이인 **박태용**(42)씨다. 친구인 세 사람은 각각 방송, 통신, 기업합병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0시(현지 시각) 그리스에서 출발해 불가리아·세르비아·독일·프랑스 등을 거쳐 같은 날 밤 11시 37분 19번째 나라인 리히텐슈타인에 도착했다.

주요 이동 수단은 자동차였지만 항공기도 두 번 탔다. 그리스·불가리아 접경지역을 떠난 이들은 불과 5분 만에 자동차로 불가리아 땅을 밟았다. 걸어서 국경을 넘기도 했다. 마케도니아·코소보 국경에서는 도로가 정체되자 자동차에서 내려 뛰어서 코소보 땅을 밟고 되돌아왔다.

위기도 겪었다. 동행한 카메라맨이 촬영이 금지된 그리스·불가리아 국경에서 무리하게 촬영하다가 구금됐다. 마케도니아에서는 예약했던 렌터카를 다른 고객이 가져가는 바람에 낡디낡은 구식 자동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가포스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개의치 않는 일들이었다"며 "이 모든 게 여행이 만들어 낸 재미"라고 말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나라를 거칠 수 있었던 건 세 사람의 꼼꼼한 역할 분담 덕이었다. 주비크는 운전을 전담했고, 가포스가 여행 경로를 체크하고 지도를 확인했다. 박씨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먹거리나 에너지 음료 등을 나눠주며 힘을 불어넣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들의 이런 모험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같은 여행에 도전한 이들은 하루만에 17개국을 방문했었다. 이 기록도 당시 세계신기록에 올랐는데, 불과 4개월만에 다시 깬 것이다. 기록 경신을 위해 경로를 사전에 방문한 것은 물론, 공항 바로 앞에 렌터카를 대기시키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순흥 기자

美 태평양사령관에 일본계 해리 해리스 지명

해리 해리스(58·사진)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으로 지명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해군 대장인 해리스 사령관을 인준해 달라고 상원에 요청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요코스카(横須賀)에서 주일(駐日) 미군이던 아버지(부사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일본계 태평양사령관이 된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본부가 있는 태평양사령부는 미국 서부 해안부터 인도 서쪽 해역까지 배치된 30만명의 병력을 지휘한다.

1978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P-3C 오라이온 정찰기 조종사로 시작했다. 항공모함 사라토가 전단 전술장교, 72기동전대장, 해군 참모차장, 6함대 사령관, 합참의장 보좌관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아시아계로는 에릭 신세키 전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두 번째 4성 장군이 됐다. 사막의 방패·폭풍작전, 아프간 침공작전, 이라크 침공작전 등 8개 전쟁과 작전에 참여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조지타운대 안보학,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정치학 등 석사 학위만 3개를 갖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태평양 함대에 가장 큰 안보적 위험 요인은 북한으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부음

▲**권말행** 별세, **임영철** 대구교통방송 본부장·**임영배** 前 안동경찰서 근무·**임석종** 서울 월곡중앙교회 담임목사·**임승춘** 오산역 부역장 모친상=23일1시 안동의료원, 발인 25일7시, (054)850-6449

▲**김영창** 별세, **최성환**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장인상=23일11시30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25일7시30분, (02)2258-5940

▲**박경진** 멕시코 MMB 운영책임자 별세, **이명숙** 남편상, **박은영** 차의과대 그룹재단 근무 부친상=16일12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9시, (02)3410-6920

▲**오복례** 별세, **고용길** 前 청주시의회 의장·**고용식** 청주농업협동조합 상무 모친상,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장모상=23일 9시26분 청주의료원, 발인 25일8시, (043)279-0157

▲**유경식** 광주남부교회 성도 별세, **유영태** 한국양토양묵농협 과장·**유영탁** LG유플러스 부장 부친상, **유창록** 동아일보 AD2팀 과장 백부상=22일1시40분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발인 24일9시, (062)670-0030

▲**유명숙** 별세, **김진한** 前 범동건설 상무 부인상, **김대중** 중국 상해한국학교 교사·**김경희** 모친상, **장시형** 조선뉴스프레스 이코노미조선 금융팀장 장모상, **권혜영** 시모상=22일22시15분 강릉아산병원, 발인 24일6시30분, (033)610-5982

▲**정용훈** 별세, **정년구**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 과장 부친상=23일15시 원주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10시, (033)741-1991

▲**채성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기술경영본부장 별세, **채현우**·**채현철** 부친상=16일12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9시, (02)3410-6919

▲**한상규** 前 한중저축은행 대표 별세, **한승호**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한승혜** 메이크업 아티스트·**한준혜** KI 파트너스 이사 부친상, **이형준** KI 파트너스 전무 장인상, **유미전** LG전자 디자인센터 수석연구원 시부상=23일1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8시, (02)2227-7580

▲**홍인표** 별세, **홍성훈** 신한은행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지점장·**홍성국** 유성TNS 부장 부친상, **김정은** 씨티보험 상무·**김경숙** 시부상=23일10시5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9시30분, (02)3410-6906